

Social Support의 한국적 의미*

오가실 · 서미혜 · 이선옥 · 김정아 · 오경옥 · 정추자 · 김희순**

I. 서 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또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의 정의나 유형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였는데, Caplan(1974)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Cobb(1976)은 Caplan과 달리 구체적인 도움과 자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지지를 정보로서 정의하였는데 자신이 관심을 끌고 사랑받으며 존중받고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지지망 속의 인원임을 믿게끔 유도하는 정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덧붙여 13가지의 비 사회적 지지(nonsocial support)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하면서도 구분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즉 상담과 같은 도구적 지지, 모성애로 돌보는 적극적 지지와 물건이나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 지지를 지적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는 배우자나 친척, 친구들과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별적 지지원과 의료전문가들이나 조직기관 등에서 주어지는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0년 초기부터 우리나라 간호학계에서도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의 정도, 원천 등을 기술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Oh, 1984 ; 박, 1985)에서 부터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중재연구(김희순, 1988 ; 정, 1992)로 보여진다. 이같은 연구에서는 “Social Support”를 한국말로 직역하여 “사회적 지지”로 쓰기 시작했으며, 점차 “사회적 지지”는 이론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받아드려지고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항감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의미를 일반인에게 물었을때 “정부의 보조나 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의미는 일부 간호계에서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개념적 의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한국 문화와 간호실무에서 도출된 개념이 아닌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사람의 연결망과 대인관계의 성격이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으며 대가족 제도와 유교 및 불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양상이나 인식이 서구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의 ‘나’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말하는 개인주의적 ‘나’와는 다르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인의 자아는 포괄적이며 가족이라는 집단

* Social Support의 “사회적지지” 영어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므로 원어 그대로 사용하였음.

** Sigma Theta Tau 한국지부 “사회적 지지” 관심 영역회원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남’이란 단순히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이 아닌 사람’ 또는 ‘나와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주의로 인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존재는 한국인에게 거의 무시해버릴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이, 1990 : 이규태, 1991). 서양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social support를 우리말로 직역할 때 의사소통에 부분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문화속에 표현이 되는 social support의 의미를 찾는 것은 문화 사회적 맥락에서 대상자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견해를 높여주게 된다. 한국사회의 한사람이 어떤 인간 연결망속에서 생활하며, 어떤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간호의 대상자를 환경과 상호관계하는 존재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간호의 중재수단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다면, 인간 환경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변화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개념의 정립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social support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및 사용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한국문화에서 social support의 개념형성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접근하려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문화 속에 social support의 개념이 있는가?
- 2) 한국문화 속에 어떤 단어나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가?
- 3) 한국문화 속에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격적으로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서 개념 분석의 한가지 정형을 따르지 않고 세단계에 걸쳐 문제에 접근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면접조사, 패널토의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단계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사람간의 연결망이나 대인관계의 성격이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우리문화 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에 나타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배경과 의식 및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관련된 논문

과 종설을 고찰하였다. 한국인과 인간관계 특성에 관한 문헌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체계적 연구에 의한 논고 보다는 종설식 문헌이 많았다. 간호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분야의 관련 서적을 검토하였다.

둘째 단계는 한국인의 사회관계와 언어 속에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 하였다. 면담조사는 연구자 6명이 총 65명의 성인들에게 개방식으로 질문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주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과 사회계층을 포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편의추출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연령은 20세부터 69세까지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31명, 여자 34명이었으며 지역적으로 서울, 부산, 춘천, 원주에서 실시되었다. 면담 조사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상황을 지칭하는 어휘와 지지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두가지 측면에 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서 1.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해 주어 내가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 Cobb(1976)이나 House(1981) 등이 내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듣고 “이러한 경우를 무엇이라 표현하겠습니까?”, 3. ‘지지’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응답자가 사용한 단어에 대해서는 그 뜻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캐묻기를 하였으며 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할 때까지 확인하였다. 면담에서 나온 어휘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함께 모여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검토하고 뜻을 분석하여 유목을 만들고 많이 나온 어휘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세째단계인 패널토의 단계에서는 연구자들과 사회학자, 철학자, 한국민속학자로 부터의 자문과 토의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불분명한 단어나 의미를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social support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인 “사회적 지지”가 한국인들에게 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념의 검증형식을 이용한 것이다. 어떤 개념의 한계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 및 사용의 한계와 다를 수 없으므로(Wilson, 1985) 본 연구자들이 가진 논리성을 다루는 기술과 심리적 인상에 제한된 결과인 점을 부연한다.

III. 연구결과

1. 문헌에 의한 인간관계

1) 인간관계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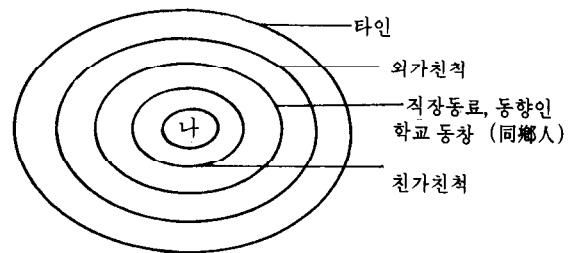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사상 및 구조를 살펴보고, 한국의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유형을 문헌고찰함으로써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그 구조 속에서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다.

이규태(1991)는 한국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남들과 맺는 인간관계를 4층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동심원의 구조속에 살고 있다고 보았다. 나를 중심으로 볼 때 가족은 제 1인간층이다. 제 1인간층에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지극히 도덕적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 테두리 안에서는 “나”라는 개인적인 가치를 소멸시키고 “우리”라는 의식속에 융합한다. 그 이유는 가족의 장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의 대응 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요시 하지 않고, 한데 어울려 일하고, 한방에 여럿이서 밥을 뵈고 잠을 자는 한국인의 가족 생활 양상은 개인주의가 자랄 가능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순응하는 습성을 발달시켰다. 이와같이 가족내의 인간관계는 인간적, 도덕적 관계를 형성하나 가족을 벗어날 수 있는 외벽은 두텁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이기 때문에 허물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은 가족이외의 대인관계가 서툴고, 사교성이 둔하여 비사교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제 2인간층은 나를 중심으로하여 가족(제 1인간층)을 제외하고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로 형성된 인간층이다.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이 제 2인간층에 속한다. 이들은 항상 가깝게 있다는 공간적 이유 뿐만 아니라 일을 매개로한 동료의식, 자기일을 해 나가는데 장기간에 걸쳐 중요한 연관을 맺고 비교적 항구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이 층에는 중요하고 다정한 친구나, 친척, 사제지간, 선후배, 동기동창, 동향 등이 포함되며, 연분에 의한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일단, 이 제 2인간층에 속하면 이질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사생활이나 생각, 행동까지 동질화하여서는 동일집단 지향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인간관계는 이해나 선악이나 고락을 초월한 정으로 맺어진 자발적 의존적 관계이며 서로에게 상대적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한다. 제 2인간층도 이보다 밖에 존재하는 층의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두텁고 배타적 영역이다.

제 3인간층은 안면이 있거나 없거나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포되어 있으며 접촉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간관계는 멀어져 있으나 필요시엔 그다지 멀지 않게 있는 것 처럼 생각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제 3인간층은 작위적이며 일방적인 의리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 이 인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내의 친정식구들, 자매나 딸의 시집식구들, 국민학교나 중학교 동창들,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통해 사귀게 된 외지사람들, 대기업체의 회사원들, 다품상점 주인들이다.

동심원의 가장 밖에 있는 층, 즉 제 4인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인이다. 소개만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고 마는 낯선 인간관계이다. 낯모르는 외국인도 이 층에 속한다. 제 4인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국인을 비사교적이며 무관심과 단절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동심원

2) 인간관계의 유형과 기능

한국인의 인간관계 유형과 기능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상은 불교에 나온 것으로, 일반인에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자비회사(慈悲喜捨)를 들 수 있다. 또한 지지적 인간관계는 이익 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한국 농촌의 자생적 이익집단으로서 품앗이, 계 등이 있으며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생적 집단으로서 마을 단위의 상회위, 신흥 중입도시에서의 자의 결사단체 등이 있다.

최(1989)는 한국 농촌사회의 이익집단을 자생적 이익집단과 비자생적 이익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자생적 집단으로서 두레, 품앗이, 계 등을, 비자생적 집단으로서 협동조합, 농사개발클럽, 생활개선클럽, 4H클럽 등을 제

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본철학과 태도행위로 이어져 온 몇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비회사: 자비회사 개념의 4가지 구성요소를 보면 자(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로서 영어로는 a friend, companion, associate를 의미하며 비(悲)는 사람들의 고뇌에 대하여 동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영어로는 pity, compassion, grief, sorrow를 의미한다. 회(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며 영어로는 joy, gladness, complacency 등을 의미한다. 사(捨)는 원친(怨親)에 따라서 차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평등하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영어로는 overlooking, disregard, negligence, indifference, contempt, abandonment, endurance, patience 등을 의미한다.

이 사상에 의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독특한 인간관계기능을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출산시에 ‘금줄’을 침으로 해서 집안의 경사를 이웃에게 알리고 이웃이 함께 기뻐해주는 동시에 산후 일정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로 되는 안정과 안전을 협조해 주는것, 장례시의 ‘울력’으로서 여러사람이 힘을 합해서 어려운 일을 치루어내는 것, 돌림병이 돌고 있을 때 마을 입구에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뿌리므로서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격리표시를 하여 질병을 예방하려는 배려 등이 있으며, 지금도 희미하게 이런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상은 불교의 복전(福田)사상에 의한다고 한다. 복전사상은 ‘복을 짓는다’로 표현되기도 한다. 복전은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와 부모를 공양하고 민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행의 결과로 목덕이 생긴다는 뜻에서 그 복인(福田)이 되는 삼보, 부모, 빈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며 복인을 복전으로 표현하는것은 부처를 공양하면 밭에서 먹을것을 거두어 들이듯이 복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라 한다(최, 1990).

말라니기 : 말라니기는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주민들간의 심리적 유대를 강화한다. 이는 비형식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일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정보망을 이룩하고 특히 고민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품앗이 : 농업 사회의 특성은 가족제도와 촌락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광규, 1991). 전 산업 사회의 농경은 가내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이 가내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가족들은 마을에 군집하여 살게된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대집단이며, 생산과 소비단위를 이루는 경제집단 뿐만 아니라 유교를 실천하는 종교적 집단역할을 하였다.

유교의 영향으로 부계가 강화되어 동족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것이 문증을 발달시키는 한편, 동족부락을 발전시켜 촌락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촌락 단위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주민과 가족이 일상 생활과 경제 생활 그리고 정서 생활에 필요한 상대를 마을내에서 구하는 공동 운명체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내에서 혹은 부락내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길 풍대사 때마다 자연부락 주민들간의 상부상조는 전통사회의 관행이었다. 상부상조는 당사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는데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개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주고 받는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상부상조를 일상생활에서 ‘품앗이’라고 표현한다.

‘품앗이’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호혜적 행위(reciprocity)의 일체를 포함하여 한국 농촌 인간관계의 기본유형이라고까지 인식되고 있다(김주희, 1988).

호혜적 행위는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베푸는 쪽과 베풀어 보상하는 쪽의 두 당사자를 포함한다. 베풀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호의, 은혜, 자비 등의 형태를 취하며 물질적일수도 비물질적일 수도 있다. 이때 베풀어지는 행위는 균형적 보답을 전제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관계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며 수평적, 수직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와도 맺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두사람 사이에는 어떤 종류이든 사회적 연결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품앗이는 되돌려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지나친 호의를 삼가하게 한다.

‘품앗이’의 인간관계는 역할(role)과 정서(effect)의 두 측면을 가진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주희, 1988). 역할로서의 품앗이는 禮라고 하는 사회적 의미의 이행을 의미하며 정서관계로서의 품앗이는 情이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농촌의 인간관계에서 품앗이의 유형은 역할과 정서의 측면이 어떤 비율로 작용

하느냐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1) 역할만이 강조되는 품앗이 관계는 의례적 관계로서 결혼이나 장례등과 같은 공식행사에 보조금을 교환하는 정도의 관계들 가지게 되며 2) 역할과 정서가 어느정도 강조되는 품앗이 관계는 친척간의 품앗이 관계와 같이 어느정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 3) 강행 정서적 끈에 의한 품앗이 관계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한 친구 등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수딘스로서 품앗이가 있는 경우이다. 4) 역할과 정서가 일체가 되어 나타나는 품앗이 관계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로서 부모 자식간의 품앗이 관계와 같은 유형이다. 이상과 같이 역할과 정서의 측면중 어떤 측면이 강하냐에 따라 품앗이의 성격이 달라진다.

서울과 부산의 영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사회적 연결망과 상호도움에 관한 연구(김, 1990)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의 연결망을 활용하는 일의 내용이 다음의 4가지로 나타났다. 1) 외출시 집보거나 자녀맡기기, 손님치르기나 이사 등의 일상적인 도움 2) 소액이나 거액의 돈, 연대보증인의 필요와 같은 경제적 도움, 3) 자녀교육, 남편의 직장 및 장래문제, 부부문제, 지신의 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도움, 4) 급한 질병사고나 관혼상제와 같은 위기시의 도움 등 이었다. 이때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척, 이웃, 친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품앗이의 성격을 띤 개인적인 사회적 지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품앗이' 관계가 한국 농촌의 인간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관계라 생각된다. '품앗이' 관계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음을 의미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중요한 유형이다.

계 : '계'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우리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이지 협동문화이므로 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광의의 계는 생활공동체에 대한 명칭으로 쓰였으며, 협의의 계는 조합원리에 기초하여 민생을 목적으로 조직된 서민단체를 지칭한다.

계는 대부분 자연에 기초한 것으로 성원간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중계, 종계 등 혈연에 기초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 농촌의 계는 자연에 기초한 것이다(나, 1989). 계는 자연발생적인 집단 연대성에 기초하고 원

래의 동기가 관련이 목표하는 사회질서 유지나 통치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자연부락은 조세문제 이외의 생업에 대한 관련의 간섭이 없는 자치적인 운영단위가 되어왔다.

조선 후반기에 계의 목적은 관의 가렴주구(苛斂誅求 : 세금같은 것을 가혹하게 받고 물건을 강제로 청구하여 국민을 못살게 구는 일과 같은 것)에 대한 국민의 자구책으로 공동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가 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권촌심제의 비용미련을 위한 징조격 공제적 성격의 계가 유행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조선후반기 계의 목적은 관혼상제의 비용, 중앙청부로 부터의 수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지역에 살거나 동일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자주 접촉하게 되고 상호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이들 위험을 집단적 대응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사회는 유교적 생활방식으로서 관혼상제 의례를 중요시 하였다. 특히 부모의 장례, 자식의 혼례 등 일시적으로 많은 지출을 요하는 대사(大事)시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계를 조직하였으므로 강제저축적 성격이 강하다.

계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는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까지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보부상회라는 보부상들의 조합은 고향에 남겨둔 구성원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부모상을 당하면 그 부근에서 활동하던 보부상들이 도왔다. 가족을 떠나 객지로 돌아다니는 행상인들에게는 가족의 생활안정이 문제였으므로 조합적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여 이같은 위기 상황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계는 대부분 자연에 기초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상호적, 공제적 성격을 띤다. 경제적 위험에 집단적 대응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같은 지역에 살거나 동일직업에 종사하므로써 자주 접촉하게 되고 상호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서 구성원간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 경제적 상호지지의 기능을 한다. 즉, 계는 물질을 매체로 하여 맺는 인간관계이므로 물질적 도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유대유형 : 우리나라에서 1960년과 1970년대에 이루어진 농업발전의 변화로서 상업적 농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농가는 이때 자급자족의 단계를 넘어서 잉여농산물이 이윤의 획득과 연결되면서

화금작물의 재배에 힘쓰게 되는 변화를 가지게 된다. 농사기술의 개혁이나 농산물의 판매전략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상, 1985). 즉 특수 화금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이 농사기술의 개혁을 위한 모험을 하기보다는 몇 사람의 지도적인 농가가 함께 농촌지도소나 면사무소 등에서 새로운 농사지식을 전수받아 시도함으로써 위험으로 인한 재난을 격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기를 감을 약화시키며 농민들의 판매에 있어서도 마을 단위로 생산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계통출하 등의 단체행동을 하므로써 마을 전체가 상행위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집단대응은 지지집단 형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방 후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이동현상과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다. 공업화와 함께 도시 산업부문의 노동력이 이농민들로 채워졌으며 이러한 인구의 이동현상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조직에 심각한 재조정을 요구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친척과 이웃하여 살았으나 고향을 떠난 이농민들은 도시의 외지인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없이 생활하게 된 것이다. 직장에서 하급 비숙련공으로 일하면서 외지인으로서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움을 얻을 만한 상황에 있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 및 친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생활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주위에는 도움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1985)는 객지생활에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인간관계망을 형성하여 구성원들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기 위하여 신흥공업도시에서 자의결사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체는 혈연에 기초한 단체인 종친회 또는 화수회, 지연에 기초한 향우회, 군민회, 도민회, 학연에 기초한 동창회 또는 동문회로 구분될 수 있다.

혈연에 기초한 결사단체들은 선조를 위하여 반드시 위선(爲先)사업, 의료 및 장학사업 등의 부조(扶助)사업, 자손들에게 조상을 알리는 계몽사업 등을 하며 지연이나 학연에 기초한 결사단체들은 향우회나 동문회 조직을 통하여 생활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심리적인 지원을 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상호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사적인 지지체제를 보여준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은 유교적 가족제도와 농경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또 한편 오래된 불교적 사고의 흐름에 의해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삶 자체와 배타적인 생활 철학속에서 가족지지가 강한 지지기능을 하였으며, 생활속에 상부상조의 사적 연결망을 통한 정서적 물질적 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식화되고 조직화된 공적 지지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화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한 마을 혹은 가족 전체가 모두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되었던, 전통적으로 생활 깊숙히 존재해왔던 지지는 사라져가고 상공업 사회에서 독특한 유형의 지지적 인간관계가 생기고 있다. 즉, 농업사회에서 가족제도와 촌락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특성에 따른 정서적, 금전적 지지의 기능을 하던 품앗이, 말라니기, 계 등이 상공업사회로 오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대체하는 행태가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가족중심적이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 특성인, 사적인 관계에서의 지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문가나 기관 등에서 주어지는 공적인 지지를 수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Social Support를 표현하는 단어

첫번째 면담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입원, 가족의 사망, 실직, 이혼 등)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인정, 격려해 주며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해 주어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면—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나를 어떤 사람(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들이 표현한 단어는 연구자들간에 ‘뻘’, ‘편듬’, ‘뒤틀리저’와 같이 격렬하지 못한다고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 선택된 20개의 단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연구자 각자는 선택된 20개 단어에 대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으며, 일반인들과도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의미와 그 차이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덕’, ‘복’, ‘행운’, ‘정’, ‘은혜’, ‘도움’, ‘지원’의 7개 유목으로 정리하였다.

‘덕(德)’은 매우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 자수상의 의미, 학문적

의미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바람직한 인격과 그 인격의 발현으로 나타난 결과를 뜻한다.

〈표 1〉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황을 기술한 단어

유목	표현단어	빈도
덕	인덕	14
	은덕	8
	덕	3
	덕	3
복	복	8
	부	5
	인복	2
	천복	1
행운	행운	6
	행운	5
	운	1
정	정	5
	정	3
	사랑	2
도움	도움	8
	도움	5
	상부상조	2
	협조	1
은혜	은혜	3
	은혜	1
	신세	2
지원	지원	4
	지원	3
	동조	1
기타	기타	3
	용기	1
	덕덕함	1
	케	1

‘유덕하다’는 표현은 바람직한 인격을 의미하며 ‘공덕’, ‘은덕’ 등은 밖으로 들어난 결과를 뜻한다. ‘홍덕’, ‘부덕’, ‘패덕’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천덕’, ‘진덕’, ‘지덕’ 등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피면담자들은 ‘덕’이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자신의 인격과 덕으로 인해 받는다는 조건적 의미이다.

한편, ‘인덕’은 인격적 품성의 의미가, ‘은덕’은 작용의 보람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어휘들로서 ‘덕’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같은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복(福)’의 사전적 정의는 아주 좋은 운수나 큰 행운과

오랫동안 행복으로 풀이된다. 그 뜻은 필요한 것이 두루 덕덕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주 좋은 운수가 무엇이며 큰 행운과 오만한 행복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인지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혹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풀이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복’은 壽, 富, 貴, 多男의 요소를 의미했다.

한국적인 “福” 사상의 밑에는 아무런 까닭이 없이 사담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복을 받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최, 1990). 복인복과(福因福果)라는 말이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복전(福田)이란 말도 복인복과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佛家의 개념이다.

본 면접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단순하게는 좋은 운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경우와 복인복과의 개념으로 응답하는 두가지 뜻을 의미하는 것이 있었다.

복이 능력밖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행운’이나 ‘운’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사귀고 상종하여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인복’과 ‘천복’의 개념을 포함한 ‘복’의 의미는 ‘행운’의 의미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복’과 ‘행운’은 각각의 유목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행운(幸運)’은 능력 밖의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주어지는 운수로서 영어의 ‘luck’에 해당한다.

‘정(情)’은 마음(心)의 상황을 뜻하지만, 풀의 싹을 의미하는 ‘생(生)’과 ‘샘(井)’의 합자로 샘속에 잔잔하게 고인 맑은 물색을 의미하므로 ‘청(靑)’의 푸르다는 뜻과 잔잔하게 벗어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규태(1991)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이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정서적이고 심정적인 요인을 정(情)이라고 하였다.

한국인의 정서적 어휘에 대한 민속어휘적(ethnolexicographic) 조사에 의하면 ‘情’의 개념은 친근함과 애정의 복합적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며 정을 표현하는데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이 들다’와 ‘정을 주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 1992). ‘정이 들다’라는 표현에서 ‘들다’의 행위자가 ‘정’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이 인간의 능동적 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정감의 감정이 인간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점진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情’의 개념은 친근함의 의미를 나타내며 일방

성이 아닌 쌍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을 주다'라는 표현의 경우에 행위자는 사람이 되므로 이때 정 of 감정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조정되며 그러므로 친근의 의미보다는 애정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정 of 개념과 관련이 있는 용어로서 '가까움', '친근', '친밀'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친숙함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정'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의 속성으로 '사랑', '좋아함', '애착', '따뜻함' 등의 어휘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과 '사랑'을 같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은혜(恩惠)'는 남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혜택을 의미하며, 남으로 부터 입은 '신세'가 매우 고마울 때 표현하는 용어이다. '신세를 입다' 혹은 '신세를 지다'라는 용어는 '은혜를 입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같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도움'의 사전적 정의는 1) 남을 위하여 힘쓰다, 2)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다, 3) 남의 괴로움을 적게하다, 4) 구원하다의 뜻으로서 서로서로 돕는다는 뜻을 가진 '상부상조'와 힘을 모아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진 '협조'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정과 최(1992)는 지연, 혈연, 종교 또는 직장 등의 연고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큰 일을 당한 경우에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서 베푸는 원조를 상호부조(mutual aid)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의 '상부상조'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여진다. 도움과 비슷한 '지원(支援)'의 의미는 지지하여 응원함이라든가, 붙들어서 버티는 것으로 보다 크게 보여지는 물질적, 정책적, 조직적 의미의 도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도움'의 의미와는 그 강도가 다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으나 뒤에서 이해하고 어느정도 조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조도 '지원'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단어는 '덕'이었으며 그 다음이 '복', '도움', '행운'과 '정'의 순서이었다. social support의 현상을 표현하는 "두사람 사이의 자원의 교환"을 나타내는 독특한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나는 덕이 있는 사람" 혹은 "복이 있는 사람" 등과 같이 나타난 것은 본 면담에서 질문의 방법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로서 지지를 받는 사람쪽의 인지에 초점을 두어 질문하였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의미표현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두번째 질문은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정의를 주고 이에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Cobb, House

등의 social support의 정의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규명하였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나 인정과 격려, 지식과 정보의 제공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한마디로 무어라 표현하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 반응은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적지지의 정의를 표현한 단어

유목	표현단어	빈도
정신적 도움	지도편달	8
	자신감부여	1
	격려	2
	믿어줌	1
	힘써줌	1
	조력	1
	감싸줌	1
물질적 도움	도움	8
	후원	4
	찬조	2
	물주	1
		1
은혜	은혜	7
	신세	3
	은인	3
		1
믿음	신뢰	7
	믿음	3
	보증	2
	책임	1
사랑	사랑	7
	모성애	6
		1
보호	보호	5
		5
정	정	4
	친밀감	3
기타	현신	1
	봉사	2
		1

이 번점의 결과로 얻어진 어휘는 총 27개였는데 각각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으며 그 의미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찾아서 연구자들간의 토의를 통하여 의미 분석(critical content

analys's)을 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그 결과 '사랑', '보호', '정신적 도움', '물질적 도움', '은혜', '정', '믿음'의 7개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social support의 이같은 결과는 첫번째 면담에서 social support의 상황에 대해 정과 은혜의 의미로 지지받는 상황을 기술한 어휘와 마찬가지로 '정'과 '은혜'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social support에는 정과 은혜의 의미가 내재된 것으로 고려되어 이 두개념을 일단 선택하였으며 '은혜'에는 '은인', '신애'를 포함하였고, '정'에는 시로의 교제가 깊음의 뜻을 가진 '친밀감'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김(1992)의 연구에서 정과 관련이 있는 용어로서 '친밀'이 포함되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지지 받는 상황을 표현하였던 '덕'이나 '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단어가 새로이 제시되었다. '사랑'과 비슷한 것으로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어미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성애'도 포함되었다.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1) 중히 여기어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2) 이성애 끌리어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 3) 일정한 사물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마음 등이다. 본 조사에서는 사랑을 중히 여기어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모성애도 이러한 의미로 보아 같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표 3).

김(1992)는 '사랑'을 '정'의 속성이면서 능동적 측면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은 근심스런 표현으로 보여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랑'이 이성간의 애정을 나타내 일반적이며 구체적 어휘로 인식되는 반면에 '정'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수 있으며 은근한 정서의 표현이 가능한 보편성 때문에 깊은 뜻을 주며 또한 편안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더 베풀적으로 두 이성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여져서 정과 사랑의 유목을 따로 분류하였다.

한편, '도움'과 비슷한 단어가 상당수 있어서 '정신적 도움'과 '물질적 도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신적 도움'에는 자신감 부여, 격려, 힘써줌, 감싸줌, 밀어줌, 조력, 지도편달 등의 추상적 의미와 구체적이고 도구적인 물주, 창조, 후원과 같은 물질적 의미의 도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믿음은 '꼭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 '마음으로 의지함', '신앙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믿음'에는 믿고 의지함을 의미하는 '신뢰', 틀림없이 책임을 지는것을 의미하는 '보증', 도맡아 해야 한다는 뜻의 '책임'과 같은 뜻을 '믿음'으로 묶었다.

한편 '보호'로 표현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으나 이는 '보전하여 호위함', '돌보아 잘 지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지를 제공하는 일방적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간상호간의 교제와 주고 받음의 사회적관계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졌다.

세번째 면담에서는 social support를 '사회적 지지'로 번역하였으므로 이 말의 뜻이 social support의 뜻을 내포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념화되는지 알기 위하여 '지지하다' '지지받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을때 이에대한 응답은 표 3과 같은 어휘로 정리되었다.

14개의 어휘가 지지를 뜻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묶어 분류한 결과 '이전동의', '믿음' 그리고 '도움'의 3개로 나뉘어졌다.

'도움'의 영역으로 '격려', '밀어줌', '성원', '뒷받침', '받쳐줌', '조력', '힘써줌'과 같은 단어들이 묶여졌다. '마음에 느낀바 생각에 찬성함', '도와서 성취시킴' 혹은 '동의함'은 의견의 찬성으로 볼 수 있었다.

'지지'에 대한 의미는 비교적 구체적인 단어로 해석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social support의 내면적 의미의 일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social

<표 3> "지지"를 표현한 응답

유목	표현단어	빈도
<u>도움</u>		<u>22</u>
	밀어줌	8
	성원	6
	받쳐줌	3
	격려	2
	성원	1
	힘써줌	1
	뒷받침	1
<u>의견동의</u>		<u>15</u>
	찬성	14
	동의	1
<u>믿음</u>		<u>4</u>
	든든함	2
	밀어줌	2
<u>기타</u>		<u>4</u>
	선거후원	2
	활력	1
	신세짐	1

support의 의미를 가진 단어의 모색이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면담과정을 통하여 면담자들은 응답자들에게 사회적지지의 상황이나 정의와 일치되는 경험을 하였는지, 또 이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재확인 의 문답을 하였으며, 이때 모든 응답자들이 주저함없이 지지 현상을 인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람의 사회적 관계에는 사회적 지지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사회적 의미와 도움의 속성을 포함한 복합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3. 한국어로 표현된 Social Support의 구성요소

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이 조사된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 문화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 구조 및 기능을 찾아보고자 관련 문헌 조사 및 토론을 통하여 한국문화속에 내재된 단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거치며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덕’과 ‘복’이 상호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합의를 보았으며 ‘은혜’, ‘정’, ‘도움’, ‘믿음’이 사회적 지지의 의미에 부합되는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덕(德)’은 사람의 인격적 품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신의 선행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여 두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덕’은 어떤 선행에 따른 마땅한 결과로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위적인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 두 사람 사이의 자원의 교환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한 어휘가 아니며 ‘복(福)’도 주어진 운수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개인적으로 제공받은 지지에 대한 인지로 보기 보다는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마음의 우명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고 받음(reciproci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논의되었다.

한편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즉 자해를 의미하고,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건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지지의 개념중 인지된 지지(perceived support)와 같이 볼 수 있었으며,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사람사이에 발생되는 감정을 지칭하는 ‘정’은 친근과 애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은 애착의 감정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생기게 되며, 두 사람사이에서 자원교환의 동기를 유발하는 대인감정으로 볼 수 있어 사회적

지지를 주고 받는 동기가 되는 핵심 요인이라고 논의되었다. ‘도움’은 조력이나 보조와 같은 뜻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나 ‘후원’, ‘보호’의 유사어로 보여졌다. 일반적으로 ‘지원’과 ‘성원’, ‘조력’, ‘격려’, ‘뒷바침’ 등을 같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보호’는 지지를 제공하는 입장을 설명하는 ‘도움’을 담고 있어 ‘도움’과 유사어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단어는 ‘도움을 주다’, ‘도움을 받다’와 같이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포함하여 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의 일 측면을 설명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지원’은 ‘도움’과 같이 보았으며, ‘덕’, ‘복’, ‘행운’은 인간의 연결망이나 상호관계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지지의 행위나 느낌이 연결된 후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들 어휘가 나타내는 의미의 일부분은 ‘은혜’의 의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랑’과 ‘정’은 social support의 ‘관계’속에 흐르는 정서적 요소를 표현하는 단어로 보아 ‘사랑’은 ‘정’의 유목에 귀속시켰다. ‘보호’는 ‘도움’의 유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신적 도움’과 물질적 도움도 ‘도움’의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의견동의’는 ‘믿음’의 유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과정에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social support를 이루는 기본틀이라는 합의점을 떨치기 힘들었다. ‘연’은 사람간의 관계에 있어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는 끈이라 할 수 있다. 혈연이나 지연과 같이 자연발생적 요소와 학연과 같이 인위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 두 사람사이에 종씨, 동창, 동향과 같은 ‘연줄’이 닿아 있으며 적대감, 불신감이 사라지고 친근감을 갖게 된다. 한국인은 인간관계에 있어 사람 상호간의 만남을 운명적 연결인 ‘연’으로 본다. 지지가 있는 곳엔 이미 만남의 ‘연’이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연’은 social support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연결망(social network) 이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전제되어지는 개념으로 의견의 일치되었다.

연에 대한 토의과정에서 ‘의리’도 대두되었다. 의리는 일본인들의 사회적 지지의 한 요소로 발표된 바 있으며(미나미, 1989)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검토의 여지가 있음으로 짚어 보기로 하였다. 의리는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게 되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보은의 심리에서 나오게 된다. 영어는 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볼때 동양 특유의 의식구조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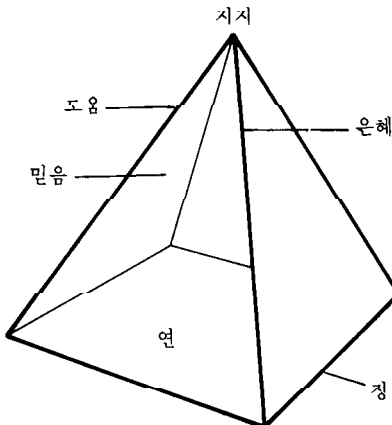
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의리의 본래 의미가 그리 순수한 정서 관계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최(1989)는 파벌집단의 두목과 추종자들간의 결합원리가 ‘의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통 파벌 집단의 두목을 백이라고 하며 이는 영어의 back 혹은 background에서 나온 말로서 자기의 일을 합리적, 비합리적으로 도와주는 유력한 배경인물을 뜻한다. 파벌집단의 두목은 추종자들의 배경인물이 되며 추종자들은 두목앞에서 무조건 복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합이 의리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의리란 합리적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리지키기”는 같은 집단 구성원 자에 강력한 상호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나 타 집단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같은 문헌의 보고와 연구자들의 의미의 개념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 의리는 사회적 지지의 속성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방향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여졌다.

정, 은혜, 도움, 믿음은 한국인의 인간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 4구성요소는 연(緣)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이같은 구성은 한국인의 동심원의 구조속에서 연이 이루어지고 연이 있을때 정과 은혜, 도움과 믿음이 단절되지 않고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의 연결망을 토대로 하여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고, 도움의 형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는 정이라는 정서적 감각으로 전달되며, 은혜로 느껴지게 된다.



〈그림 2〉 한국인의 사회적 지지 피라미트

이 과정은 비교적 조건적 관계의 흐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같은 논의결과를 그림 2와 같은 개념들로 만들고, ‘한국인의 사회적 지지 피라미트’이라 이름 붙였다. 한국사람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연의 연결망 속에서 형성하며, 그 연이 성립된 후에 믿음과 도움, 은혜와 정의 도구적, 정서적 흐름에 의해 사회적 지지가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존재하며 관찰되어지는지 또 그 개념은 어떤 단어로 표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은 고유의 인간관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양의 인간관계 양상에 비하면 사회적 지지 체계가 다양하지 못하고 가족 중심적이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의 인간관계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조와 기능은 어떠한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헌고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의 개념화 작업 결과를 정리한 concept paper이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볼 때 한국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시기에는 촌락 단위로 구성된 생활 공동체 의식이 지배적이었으며 품앗이, 말라니기, 계 등을 통해 생활속에서 정서적 유대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연결망을 맺어왔다. 이 시기의 상호연결과 시원은 전적으로 사적인 지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상공업 사회로 들어서면서 주거양식이 한 곳에 모여살기 보다는 지역간 이동이 잦아졌고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되면서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사적인 지지는 약화되거나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산업화된 사회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지체계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social support가 한국말로 번역된 “사회적 지지”는 일상용어로 공유될 수 있는 개념으로는 부적합 하지만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삶의 현장에는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한국말은 찾기 어려웠다.

현재의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social support는 도움, 정, 은혜, 믿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외국문헌에서의 지지의 속성과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연결망에 의한 관계형성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도움의 형태가 생기며 정이라는 감정적 흐름이 있게 되며 이를 은혜라는 무조건적인 반응과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것으로 확대 인식되어 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는 사히적 지지는 존재하며, 위와 같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은 아직 발견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한국인의 social support 피라밋은 타당성을 관찰하는 현장연구를 통해 개념의 속성을 재확인하는 연구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정자(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1.
- 김주희(1988). 품앗이와 정. 한상록 편. 한국인과 한국 문화. 성실당, 126-142면.
- 김주희(1992). 한국인의 정서적 어휘의 분석. 김주희저.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집문당, 293-300면.
- 김희순(1988).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나병균(1989). 제와 사회보장. 하상락 편. 한국 사회 복지사론. 215-243면.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오가실(1987). 사회적지지 : 연구의 현재와 방향. Sigma Theta Tau 학술보고서, 34-47면.
- 이광규(1991). 조산사회 촌락과 가족, 전통사회의 가족과 촌락생활. 한국의 사회와 문화.
- 이규태(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 이문웅(1985). 신흥공업도시에서의 외지인의 생활적응 : 특히 석충선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편. 사회변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27-146.
- 이인정(1989).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4 : 163-197.
- 이호영(1990). 정신분석학자가 진단한 한국인의 성향. 계간 사상. 여름호 : 90-128.
- 장윤식(1985). 向都農民 : 商業的 農業의 興起.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편. 사회변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09-126.
- 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 정지웅, 최병익(1992). 농촌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31-232.
- 정추자(1992). 사회적지지 모임의 뇌척추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성격. 개문사.
- 최정호(1990). 복의 구조-한국인의 행복관. 계간 사상. 여름호 : 163-210면.
- Brandt, P., & Weinert, C.(1981). The PRQ-a social support measure. N.R. 30(5), 277-280.
- Caplan, G.(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Cobb, S.(1976). Presidential addres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 Med. 38 : 300-314, Sept-Oct.
- Cohen, S., Mermelstein, R., Kamarck, T., & Hoberman, H.(1985). Measuring the functional componts of social support. In I. G. Sarason, & B.R. Sarason(Eds.),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73-94.
- Hause, J.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Massachusetts.
- Minami Hiroko(1989). Keynote address in 2nd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upport : proceedigs.
- Norbeck, J.S., Lindsey, A.M., Carrieri, V.L(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c social support. N.R. 30(5), 264-269.
- Oh, Kasil(1984).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Wilson(1985). Thinking with concepts. second ed. :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ch for the Meaning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Kasil Oh, Margaret J. Storey · Lee, Sun Ock

Kim, Jeong Ah · Jeong, Chu Ja

*Oh, Kyung Ok · Kim, Hee Soon**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support was first used as a research concept in nursing and has not had much application in the clinical field. Another problem is that research on social support has used a direct translation of the words "social support" into Korean as "sawhejuk jiji".

Three questions were posed to direct the research.

1) Is there a concept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2) if so, what words or expressions are used to describe it?

3) further, if so, how is social support structured and how does it function?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 three-step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The first step consisted of a literature review on research related to social support and on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of, and the way of thinking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Korean people. The second step, which was done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concept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involved interviewing a sample of the population. The third step involved a panel discussion that included the members of the research team and three consultants, a sociologist, a philosopher and a scholar in Korean literatu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identified a four circle structure that explai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first circle with "me" at the

center is the family but here "me" disappears into the "we" that is essential for a cooperative agricultural society. In the second circle are those close to "me" but outside the family. The third circle includes those with whom "I" have infrequent but regular contact and with whom correct conduct is important. The last circle is all the people with whom "I" have nothing in common. They are exclud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iteratur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ed that with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people lived in villages where most people were very familiar with each other. "Yun", the social network established the connection and "Jung", the feeling of affection increased with time as the connection was strengthened. In the traditional village psychologic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Mallaniki", "Pumashi" and "Kae" with the latter two also providing material support. In modern Korea there are more informal and formal social networks, like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activities on the formal level and cultural and leisure groups along with "kae's on the informal level. But even with this modern variety of groups, most social support comes from informal networks that resemble the traditional "Pumashi", "Kai" and "Mallaniki".

The six member research team interviewed 65 people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concept of social support and then analysed their responses. There were 20 different words describing the reception of the social support and these could be grouped into seven major categories: virtuous, fortunate, helped, supported, blessed, attached (receiving affection) and receiving (grace) benevolence. There were 27 words describing the act of social support which could be categorized into seven major categories: love, looking after, affection (attachment), kindness (goodness), faith, psychological help and material help. For the meaning of social support translated as "sawhejuk jiji" there were a

* Sigma Theta Tau, "Social Support" Interest Group Members.

total of 14 different answers which could be categorized into 3 major categories : help, agreement, and faith.

In third step,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ere discussed in a pannel.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led to the following definition of social support in Korea which is shaped like a the four sided pyramid on a base. Social support is the apex of the pyramid and four sides are made up of : "do-oom"(both emotional and material help), "jung"(connectedness, or relationship bound by affection, regard or shared common experience), "midum"(faith or belief in), "eunhae"

(kindness or benevolence). The research team identified "Yun"(the basic network of relationships) as the base of the pyramid and as such the foundation for the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in Korean culture. On "Yun" rest the other four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 "Jung", "Midum", "Do-oom", and "Eunhae", For social support to take place there must be "Yun". This is an important factor in social support. In private social network "Jung" is an essential facotr in social support. But not in the public social network. "Yun" is a condition for "Jung" and "Jung" is the manifestation of support.